

신정아 감독 발탁 외압이나, 행운이나

“신씨 추천 이교수 주도 이사장에 선정권 넘겨”

고위층의 외압에 의한 압력 선정인가, 아니면 적임자 부재에 따른 행운의 발탁인가. ‘가짜화위’ 파문의 주인공 신정아(35)씨가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임된 배경을 놓고 최근 외압설이 제기되면서 그의 ‘발탁’ 과정에 또 다시 세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신씨가 세계적인 미술이벤트의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임된 배경은 유력 후보들의 잇따른 고사·사퇴로 인해 인물난에 봉착한 재단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8일 광주비엔날레재단으로부터 입수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선정소위원회(선정소위) 회의자료를 토대로 ‘외압설’을 제기하면서 외압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 의원은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과

이사장에게 넘겼던 과정을 놓고 선정소위 위원들 간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선정소위에 참여했던 A위원은 지난 6월27일 3차회의에서 신정아씨를 추천한 이종상 서울대 명예교수(선정소위원장)가 회의 분위기를 ‘이사장에게 전권을 넘기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항의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차점자였던 박씨를 감독 후보로 단독 추천하는 것이 순리였는데 투표결과를 뒤집고 원점으로 돌아가 한 전 이사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은 ‘신씨를 염두에 둔’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명예교수는 “후보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줄줄이 고사하면서 많은 시일을 소비했기 때문에 ‘시간절약’ 차원에서 이사장에게 전권을 넘기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전 이사장은 “후보들을 개별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들을 제외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남은 인물이 신씨 밖에 없었다”며 “짧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외압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 나처럼 나이 70이 넘는 사람이 외압에 휘둘리겠느냐”며 외압설을 일축했다.

이같은 한 전 이사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원들도 있다. 선정위원 B씨는 “당시 2위 후보인 박씨 외에 차점자 1명을 추가선정하지 않은 것은 추천된 인사가 또 다시 후보를 고사하거나 사퇴할 경우 야기될 후보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즉, 후보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감독직을 고사할 때마다 선정소위를 재소집해야 하는 등 감독선임 일정과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전 이사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회의상황이나 감독 추천 과정에서 특정인사를 밀어주는 분위기는 없었다”며 “화력을 위조한 신씨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선정소위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정소위가 감독 선임권을

“추천 후보 일단 고사...불가피한 선택” 선정 소위 참여 위원들 해석 엇갈리

정기 부실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출범한 선정소위는 감독 후보 9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 득표순위 1, 2위를 차지한 김승덕 프랑스 디종컨소시엄 프로젝트 디렉터와 박만우 조선대 미대 겸임교수를 감독 후보로 압축했다.

예술감독 선임이 꼬이게 시작하게 된 것은 “외국인 공동감독 선임권을 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재단이 거절하자 김씨가 후보를 사퇴하면서부터. 이에 따라 선정소위는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에게 후보에 오른 8명(김씨 제외)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고르도록 전권을 일임했다. 선정소위로부터 감독선임전권을 건네받은 한 전 이사장은 8명의 후보들과의 개별 면담을 거쳐 신씨를 내국인 감독으로 최종 낙점했다.

그러나 선정소위가 감독 선임권을

이해한 후보는 본 경선이 시작되기 전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범여권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일반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유시민 후보도 친노 주자 단일화론에 기본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은 컷오프를 통과한 친노 후보들이 지지 선언 등을 통해 우세 후보를 밀어주는 것이다.

선거인단의 약 10% 정도의 의사가 표출되는 시점에서 친노세력 단일화를 실현해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비노(非盧) 후보들을 앞지르자는 것이다.

민주신당 경선 친노 후보 단일화 될까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친노(親盧) 후보 단일화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친노 후보 단일화는 민주신당 경선의 판도를 좌우할 유력 변수로 자리 잡으며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일화론의 요지는 친노 주자들의 난립으로 인한 표 분산을 막아 본 경선에서 친노 후보를 대선 주자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일단 친노 주자 가운데 예비 경선 통과 가능성이 높은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후보는 단일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단일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해찬 후보는 본 경선 첫 무대인 내달 16일 충북·강원 경선을 지난 직후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방법으로는 열세를 보인 후보들이 지지 선언 등을 통해 우세 후보를 밀어주는 것이다.

선거인단의 약 10% 정도의 의사가 표출되는 시점에서 친노세력 단일화를 실현해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비노(非盧) 후보들을 앞지르자는 것이다.

판도 좌우할 유력 변수 급부상 세 후보 모두 시기·방법만 이견 컷오프 다득점자로 표 쏠릴 듯

이에 반해 한명숙 후보는 본 경선이 시작되기 전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범여권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일반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유시민 후보도 친노 주자 단일화론에 기본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은 컷오프를 통과한 친노 후보들이 지지 선언 등을 통해 우세 후보를 밀어주는 것이다.

선거인단의 약 10% 정도의 의사가 표출되는 시점에서 친노세력 단일화를 실현해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비노(非盧) 후보들을 앞지르자는 것이다.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단일화 움직임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크호스’로 분류되는 추미애 후보 등 여타 후보의 약진으로 인해 컷오프를 통과하는 친노 후보가 2명에 그치게 되면 양자 단일화가 된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까지 컷오프를 통과할 경우 친노 후보는 1명에 그칠 공산이 높아 단일화는 필요없게 된다.

한편, 친노 후보의 단일화가 구체화된다면 비노 후보들의 단일화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손학규 전 지사와 정동영 전 장관이 컷오프를 통과한 비노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친노 후보 가운데 2명만이 컷오프를 통과해야 하며 천정배, 추미애 후보 가운데 1명이 본선에 진출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컷오프를 통과한 친노 후보들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비노 주자 간의 단일화 등이 거론되는 등 민주신당의 경선 구도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29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도당 개편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해찬, 추미애, 손학규, 정동영, 김두관, 유시민, 신기남 후보. /연합뉴스

17대 대선 범여 경선 현황

○손학규 민주신당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YTN의 민주신당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에 출연, 자신의 한나라당 전역 논란에 대해 “정체성 공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등 때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지지율이 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 “기자·교수·전문인 사이에서는 손학규가 대통령 적합도 1위라고 한다”며 “민주신당 경선의 장이 열거를 뭉 때 국민이 진면목을 알고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이어 이날 낮 대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탈당과 관련 “처칠이 당적을 두 번 옮겼지만 누가 문제를 삼느냐. 정치적인 소신이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천정배 대선 예비후보는 29일 오후 YTN의 민주신당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에 출연, “국민에게 희망을 주

손학규 “정체성 공격, 실은 1등 견제” 천정배 “문국현·민주당과도 합쳐야”

기 위해서는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면서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과 민주당도 한 시바베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또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 실패의) 반성에서 출발해야 그렇지 않으면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다”고 친노 주자를 비판했다.

이인제 “개혁정권 세우겠다”

○이인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9일 “민주당이 중심이 돼 개혁의 노선과 가치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개혁정권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합할 대안은 손학규 후보뿐이다”며 손학규 민주신당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이윤석 전 전남도의회 의장, 김성숙 광주시의원, 나종석·서일용 전남도의원, 서재원 전 광주시의원 등 광주·전남 전현직 광역·기초의원 109명이 참여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이 44명이나 됐다.

조순형 선거사무소 개소식

○민주당 조순형 대선 예비후보는 29일 영동포 한 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국가와 국민에게 마지막 봉사하는 자세로 12월19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16대 대선에서 집권당이 됐지만 대통령의 배신 때문에 소수야당으로 전락했다. 17대 대선에서 잃어버린 정권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이태리가구 전문점
렌탈·클래식

최고급 이태리 소파, 침대, 식탁을 동남아산 가격으로 판매 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성동 11-1번지 (신성동) 02-2226-7567

KALTOUR
(위신해여행리조트)

문의전화 1577-9033

| | | |
|-----|--------------|----------|
| 제주도 | 초복기 한라산 등반 | 129,000원 |
| 제주도 | 초복기 요도여행 | 149,000원 |
| 제주도 | 초복기어여 여행 패키지 | |
| 제주도 | 초복기우뚝여행 | |

제주도 여행 전문여행사

제주도 여행 전문여행사